

Soo Yong Choi and Sang Rim Kim Legacy Scholarship

Pledged by Mr. Soo Yong Choi and Mrs. Sang Rim Kim



Mr. Soo Yong Choi and Mrs. Sang Rim Kim of New York, NY pledged to donate \$50,000 as the Legacy Scholarship together with \$2,500 of Designated Scholarship that is to be donated to NERC every year from this year. The Legacy Scholarships are bequest donations KASF established a few years ago for potential donors who wish to support our missions by naming KASF as beneficiary of a will, life insurance, trust or estate planning. Mr. Choi came to the US in 1969 as an expatriate of a trading company. Later he started and successfully ran his own businesses in a few different fields – from a trading company to real estate and banking businesses.

Mr. Choi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many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For example, he established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Stony Brook New York State University and was an advisor to Asian Committee of Mario Cuomo, the NY governor. Mr. Choi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conomics and his wife, Mrs. Sang Rim Kim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Mr. Choi also is a cousin of Dr. Sang Nam Lee, who was former Chairman of KASF National Board.



하늘가족
중앙
MEMORIAL
장의사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샌들
NEW MILLENNIUM
LANE

www.sandellimage.com



신세기
New Millennium
LANE
NY 2016 SBA 금상수상
NY. 347-836-4914
NJ. 201-944-1110
SBA 용자 전문은행



젊은신문 앞서가는신문
뉴욕일보

Wednesday, June 7, 2017 <제3690호> www.newyorkli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70

“장학사업은 한인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

최수용 · 김상림 부부 한미장학재단에 5만달러 쾌척

“자라나는 젊은 2세들을 위한 장학사업은 한인사회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투자이다”

70년대 브로드웨이 한인 도매상가의 대표로 일해왔던 최수용 · 김상림 부부가 5월 5만 달러의 장학금을 한미장학재단 동북부지회(회장 Joann Lee)에 쾌척했다. 최수용 · 김상림 부부 부부는 5만 달러의 일시장학금 외에도 매년 장학생 1명에게 2,500달러의 지정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용씨는 1969년 미국으로 건너와 무역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한인 중의 한명이다. 1960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 수출업회사의 주재원으로 미국에 왔으나, 2년만에 회사가 부도가 나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호드웨이엔터프라이즈’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증권회사로 성공을 시작했다.

최씨는 80년대에는 부동산 사업에도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고, 1988년에는 뉴욕한인사회에서 세번제로 설립된 리버데어센터의 이사진을 맡기도 했다.

최씨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및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스티븐스 뉴욕주립대 한국학 교정위원장 및 후원회장, 스티븐스주립대 총장 자문위원, 마리오 푸오모 뉴욕주지사의 아시아 자문위원, 뉴욕지구서



최수용 · 김상림 부부가 5월 5만 달러의 장학금을 한미장학재단 동북부지회에 쾌척했다. 최수용 · 김상림 부부 부부는 5만 달러의 일시장학금 외에도 매년 장학생 1명에게 2,500달러의 지정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대 동창회장, 그레이브스 한인전주교회 신자회장을 역임했다.

부인인 김상림씨는 아와이대를 졸업하였고, 정신의학고 뉴욕총동맹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미장학재단은 최수용씨가 도미한 해와 같은 1969년에 설립되어 지난 48년

간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미국의 한인학생 약 5만7천여명에게 총 8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미국내 최대의 한인 장학재단이다. 전국의 6개의 지부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30만 달러의 Endowment fund를 운용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00만 달러까지

증여하여 더 많은 인재들의 학업을 지원하여 훌륭한 한인 2세들과 더 나은 한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지회는 2001년에 설립되어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동북부의 8개주를 대상으로 장학금의 유치 및 수여활동을 하고 있다. 동북부지회는 지난 16년간 8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6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학금수여식 Gala는 9월 14일 뉴욕의 에일름턴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최수용씨 부부가 기부한 5만 달러는 Chair Scholarship로서 운영되는데, 매년 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영구 기부자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미국 추수사의 예에서는 ‘Bequest’라고 하여 5만 달러, 10만 달러 등의 장학금은 유언장을 통해 사후에 기부하는 제도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번에 한미장학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장학재단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www.kasf.org를 참조하거나, 조엘 이 회장 (516) 773-4939 또는 강상수 위원장(516-423-9800)에게 하면 된다.